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편성 핵심은?

전년비 4539억원 증가 안전한 환경·복지 재정건전성 제고 중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8년도 전북교육 예산안을 편성하여 10일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하였다.

2018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분 예산 대비 4539억원(15.9%)이 증가한 3조3157억원으로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 지속추진,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21.7% 증가한 2조8920억원으로 5155억원이 증액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3백25억원이

증가한 3317억원으로 10.9%가 증액됐으며, 자체수입(5억원 감소) 및 전년도 이월금(55억원 증가)은 920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했고 지방교육채는 미발행으로 9백11억원이 감소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1조 4968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100억원, ▲교육복지지원 440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92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579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677억원, ▲평생직업교육 68억원, ▲예비비 및 기타 80억원 등 교육일반으로 2,435억원을 편성하였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2.6%)과 호봉승급률(1.83%)을 반영하여 2017년도 대비 512억원이 증가한 1조9418억원을 편성했고,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처우개선비 120억원을 포함해 139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학교신설은 2018.3월 개교예정인 전주화정초에 47억원, 2019.3월 개교예정인 군

산초이전 외 3교에 448억, 2020.3월 개교예정인 완주청원초 외 5교 등에 384억원, 전주운빛초 외 4교의 학급증설에 52억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등 21억원으로 총 95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200원 인상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등에 1,154억원을 편성하였고, 무상보육(일명 '누리과정') 예산은 2018년도 유치원 669억, 어린이집 716억원과 201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762억원을 포함하여 2147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정비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교육환경 개선으로 총 15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 별도로 39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양사고 파난, 구조체험 등 종합적인 상시 실내 해상안전체험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해상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하여 175개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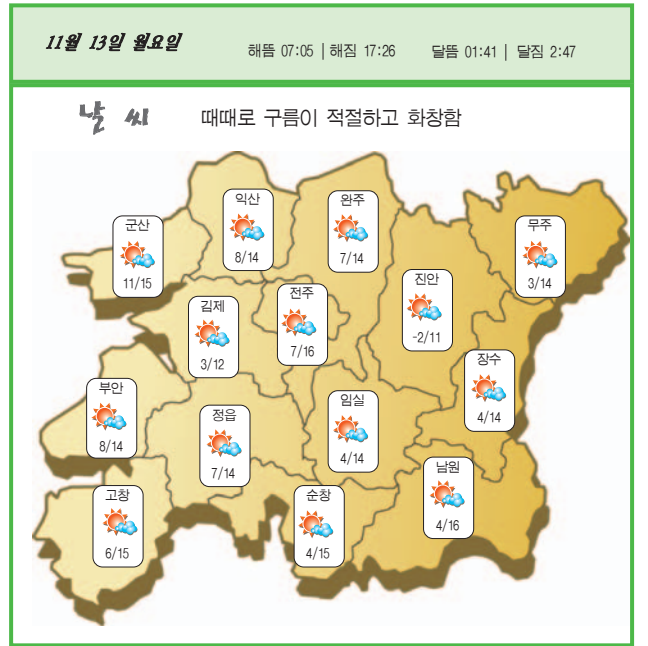
신학교 운영과 혁신교육특구 운영 등 학교혁신의 일반화를 추진하기 위해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또래학습 나눔 지원에 2억 원, 학습더딤학생 학습능력과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17억 원을 반영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 공공자금관리기금차환지방채 원금 563억원을 비롯하여 총 889억원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할 예정으로, 남아있는 지방채 규모는 4498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 경비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출된 2018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청룡관에서 제8회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년도 예술제 자료사진

제8회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제 성료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위성욱) 청룡관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단 협의회가 주최하는 제8회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마이스터고 예술제는 전국 47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류 확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들이 내재한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후원하며 전국 47개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사전에 예선을 거친 12개 팀이 출전했다.

예술제는 국립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수도권기계공업고등학교, 원주의료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금오공

업고등학교,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가 참가했다.

참가팀은 댄스, 치어리더, 합창공연, 보컬, 그룹사운드, 합창, 관악, 사물놀이, 우쿠렐레 등을 선보였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전국마이스터고프로젝트 작품전시회도 열렸다. 학교의 특색 분야별 프로젝트 작품들이 참가하며 경북기계공업고 볼링지판기 등 32개 작품이 6일부터 11일까지 전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술제는 전국 47개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며 학생들의 끼를 맘껏 발휘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D-3 수학능력평가'... 영어 첫 절대평가 시행

**성적표에 표준점수 미제공
시험체제는 전년도와 동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가 오는 16일 치러진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2460명 감소한 50만3527명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교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다.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수능은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균형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절대평가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문항 유형이나 문항 수, 배점 등 영어 시험체제는 2017학년도 수능과 달라진 게 없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 영역이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능 당일인 16일은 시험장 학교 부근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교육청은 당부했다. 시험장에는 검정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을 가져갈 수 있다.

답안지를 기입할 때는 배부받은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 표기했을 때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흰색)를 사용해 답안을 수정하면 된다.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감독관이 준비해 준다.

수험생은 문제지가 본인이 선택한 유형(기형, 나형)이 맞는지, 수험번호에 따른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해야 한다.

휴대가 가능한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시계 뿐이다. 올해부터는 본인 확인뿐 아니라 시계도 일일이 확인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해야 하며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실 밖으로도 나갈 수 없다.

아울러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에게 별도의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은 반드시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부정행위자와 4교시 응시방법을 어긴 부정행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부터 결제기능 등이 있는 교통시계 등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데 스마트폰 등 웨어러블 기기가 발달하고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수험생이 별다른 생각 없이 소지하다 적발될 우려가 있어 수험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적통지표는 12월6일 받게 된다. 재학생들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성적표를, 졸업생이나 기타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성적표를 직접 수령해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6일 오전 9시부터 <https://csnscore.kice.re.kr>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 발급이 가능하다.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에게 제공되던 이메일 성적통지지는 폐지됐다. /뉴스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